

정의선, 유럽 성장전략 모색...“EV 침체에도 투자 강화”

유럽 전기차 거점 현대차 체코공장 방문...“그룹 성장에 중요 역할”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수요 변화 맞춰 현지 맞춤 전략 재확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을 찾아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유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 특히 전기차 케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공장을 둘러보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미래시장 해법을 논의했다.

2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지난 19일 체코 오스트라바 인근 노소비체의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을 방문해 유럽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또 추석 연휴 해외에서 근무 중인 현지 임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감사를 표했다.

정 회장은 체코공장을 방문한 건 친환경차 격전지이자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도 최근 전기차 케즘에 따른 완성차 기업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 및 유럽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서다.

올 7월까지 유럽 자동차 산업수요는 790만6916대로, 지난해 1~7월 761만1988대에 비해 3.9% 늘었다.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인 12.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심각하다. 올 1~7월 유럽 전기차 산업수요는 109만3808대로, 전년 동기 108만7118대에 대비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다. 2023년 전체 전기차 산업수요 증가율은 28.2%였다.

정의선 회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유럽 내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EV(전기차) 생산거점에서 현지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이날 “체코공장 임직원들의 헌신과 전문성, 강력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체코공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면서 “체코공장의 우수한 생산성 및 손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품질, 서비스,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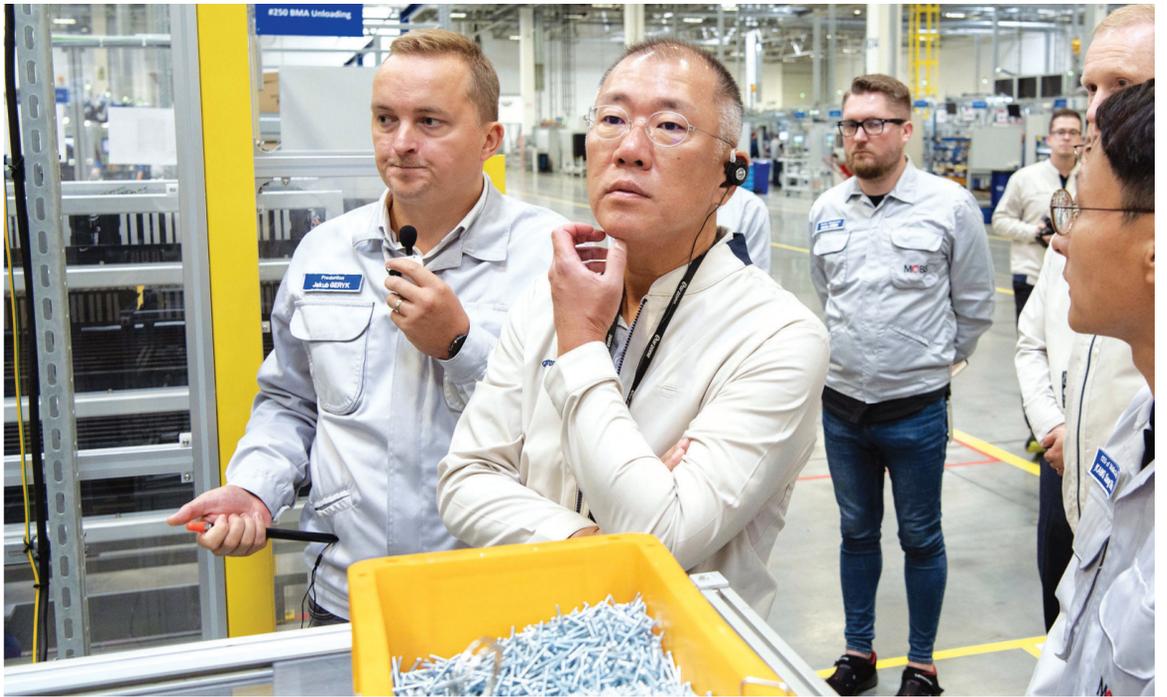
먼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등 전라산업에 걸친 유럽 맞춤형 제품 생산으로 시장환경에 신속성 있게 대처하고 전동화 역량 중장기 제고 전략 추진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유럽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투싼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한 경쟁력 있는 SUV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기차 등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공백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체코공장에서는 생산 중인 2세대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5, 올 하반기 현지 판매가 시작되는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을 주축으로 전기차 시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캐스퍼 일렉트릭은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EV 시장 공략의 전략 차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아 또한 EV6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EV9을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체코공장 현지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트림을 추가하고 올 하반기 EV3를 해외 최초로 유럽 시장에 선보이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의 전동화 속도 조절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시기를 대비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현지 생산 EV를

산업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입한다.

기아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에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유럽 EV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제네시스 GV70·GV70 전동화 모델, 미국 IIHS 충돌평가 최고 등급

올 평가 7개 모델 최고 등급 획득

제네시스는 23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70(사진)과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이번 발표로 총 7개 차종(G80·G80 전동화 모델·G90·GV60·GV70·GV70 전동화 모델·GV80)이 올해부터 강화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유한 최고 등급 모델 수가 일본 마쓰다(6개)와 혼다(4개)를 앞선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 기관은 올해부터 뒷좌석 탑승객 보호와 보행자 충돌 방지 시스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전면 충돌 평가에서 뒷좌석 더미(인체 모형)를 추가해 승객의 상해 가능성을 점검했고, 해당 항목에서 ‘양호함’(acceptable) 등급 이상을 받아야 TSP+를 줬다.

측면 충돌 평가는 기존에는 ‘양호함’ 이상을 받으면 TSP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TSP



와 TSP+ 모두 ‘훌륭함’(good) 등급을 받아야 했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방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총 3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획득해야 한다.

제네시스는 모든 모델에 ▲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안전 보조 기능을 대거 탑재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기아 HEV 등록 대수 20만대 돌파...올해 30만대 넘는다

지난해 동기 대비 19.7% 증가

국내 완성차 1·2위 업체인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HEV) 내수 등록 대수가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2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케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틈탄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주요 이유로 지목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의 연간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올해 처음 30만대를 돌파할 것이 유력해졌다.

2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차는 21만1289대로 작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한 달 평균 2만6000대가량이 팔린 셈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대차·기아의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30만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두 기업의 하이브리드차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4만3342대가 등록된 기아 쏠렌도였다.

이어 현대차 싼타페(3만5436대), 기아 카니발(2만7935대), 현대차 그랜저(2만4110대), 기아 스포티지(2만2119대) 등의 순이었다.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 증가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역시 지난해 1~8월 1209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4292대로 255% 급증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하이브리드차 총등록 대수도 2018년 6만2136대, 2019년 7만5966대, 2020년 12만7996대, 2021년 14만9489대, 2022년 18만3915대, 2023년 28만4923대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하이브리드차 인기는 수입차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8만1081대로 45.8% 급증했다.

수입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2019년 2만2844대, 2020년 3만5988대, 2021년 7만3380대, 2022년 7만4207대, 2023년 9만1680대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토요타, ‘세이프 드라이브 서비스 캠페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무상 점검·제품 교체 비용 10% 할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3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국 렉서스·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세이프 드라이브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하이브리드 시스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와이어 러버 및 블레이드 점검

및 ▲에어필터 ▲에어 케어 등 여름철에 사용된 교체비용을 10% 할인한다.

또 렉서스 프리미엄 메인テナンス 서비스(PMS) 패키지와 토요타 스마트 메인テナンス 서비스(SMS)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 인젝터 클리너를 증정한다.

캠페인 기간 고객이 소유한 차량의 현재 가치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렉서스·토요타 중고차 간 이 견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렉서스 또는 토요타 차량의 견적을 받고 공식 인증 중고차로 반납 후 재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강대한 한국토요타자동차 부사장은 “장거리 운전이 잦은 연휴 기간 이후, 차량 사후 점검을 진행하고 고객분들의 소모품 교체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고객분들이 렉서스와 토요타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경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독일, 자동차산업 살리기 폐차 보조금제 추진

전기차 세액공제 등 구제책 마련

독일 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폐차 보조금 제도를 추진한다.

23일 독일의 시사매체 슈테른 보도에 따르면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6000유로(약 90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면 3000유로(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에 전기차 임대료를 지원하고 차량 충전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포스바겐을 시작으로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이달 4일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페라나 후베르츠 SPD 원내부대표는 슈테른에 “포스바겐과 자동차산업은 독일의 엔진”이라며

“엔진이 털릴거면 다시 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오는 23일 포스바겐 등 자동차업체, 금속산업 노조(IG메탈) 대표와 함께 노사정 회의를 열어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베크 장관은 지난 21일 전기차 ID4·ID7 모델을 생산하는 독일 북서부 엠덴의 포스바겐 공장을 방문해 “대부분의 문제는 포스바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바겐은 이달 2일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2곳 줄이고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1994년부터 유지한 고용안정 협약을 해지해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부 경영진은 독일 내 공장 직원은 약 12만명 가운데 3만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벤츠, ‘AMG 익스피리언스’ 하반기 접수

서킷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AMG 차량을 체험하고 서킷 드라이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AMG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AMG 스피드웨이’는 세계 최초로 AMG 브랜드가 적용된 레이스 트랙이다. (사진) AMG 익스피리언스는 현역 레이싱 선수들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들이 지도하는 서킷 드라이빙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운전 수준별로 AMG 디스커버(기초), AMG 퍼포먼스(심화) 및 AMG 어드밴스드(최고급) 프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올 상반기 선을 보인 ‘AMG 나이트 서킷’도 하반기 계속 운영한다.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AMG 나이트 서킷 프로그램은 10만원으로 서킷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야간 트랙 주행과 오토 크로스 미니 게임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포함돼 있다.

AMG 익스피리언스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운영 사무국 또는 네이버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메르세데스 미 케어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